

2021년 제5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일 시 2021년8월20일(목) 14시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제1호 심의안건

지식산업센터(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심사·평가(○○)

제1호 심의안○○명

서울시관계자

회의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1쪽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 건입니다.

오늘은 ○○부지입니다.

지난 ○○월에 공고를 하여서, 2개의 컨소시엄이 사업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을 심사를 하면, 그 후속적으로 계약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1쪽 그 공모개요에 보시면 부지, ○○부지 위치가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총 면적은 ○○○○m²입니다.

허용용도와 토지분양 조건은 그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쪽에 보시면 사업자 평가,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방법은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정성평가는 300점을 해서, 기 SH공사 산업단지관리단에서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이미 전문가 검토 시행을 마쳤습니다.

300점 만점 내에서 평가를 하고요.

정성평가 700점은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 등급에 따라서 채점표에 표기된 대로 저희가 합계를 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쪽에 보시면 전체 1,000점 만점 중에서 800점 이상 그 득점을 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수 순서대로 우선협의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평가표에 따라서, 잘 심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제1호 심의안건심의

부위원장(○○○ 위원)

예, 그 10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그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전의결사항으로서 평가대상이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수, 우, 미, 양, 가 등급, 5등급 내에서 중복배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복배점을 할 것이냐, 우리가 중복배점을 배제를 할 것이냐, 불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이 4개 이하이니까, 평가대상이 지금 2개 기업이죠.

2개 컨소시엄이라서 중복배점이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배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선 먼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1차 때는 가능하도록, 그게 가능, 중복배점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심의를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도 2개의 경우이기 때문에 중복배점을 가능하도록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 위원

○○○처럼.

부위원장(○○○ 위원)

○○○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 ○○차 심의에서도 중복배점, 수, 우, 미, 양, 가 등급 내에서 중복배점이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그럼 이번도 그렇게 중복배점을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6장에서 7장 정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서명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안각서라든가 위원 제척·기피신청서, 평가 방법 다 보시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컨소시엄이라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참고로 기업, ○○○에서는 기업의 이름을 이번 심의에서는 알리지 않고 1번, 2번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명은 여기에서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발표 기업부터, 준비가 되셨으면 첫 발표 기업부터 입장을 시켜주셔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업체A 관계자 입장)

첫 번째~두 번째 기업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대부분 기업 내부정보이므로
외부 공개용 속기록에 미기재함)

(평가표 작성 중.)

부위원장(○○○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서울시관계자A

한 분 남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위원장님 이게,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한번 대기업들이 쪽 들어와서,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아니면 아까처럼 ○○○○밖에 안 들어오고, 실수요들은 5개가 뭉쳐 갖고...

부위원장(○○○ 위원)

그렇죠, 사실은.

○○○ 위원

쫓개 갖고 들어오고.

그런데 심지어 지분도 안 준다고, 저 ○○들이 다 가져가는 걸로 다 했잖아.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

부위원장(○○○ 위원)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가,

○○○ 위원

그러니까 ○○를 다 빼야지.

저는 지금 들어온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가.

○○○○에 다 몰려버리지.

용역하면 진짜 그거는 바꿔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가 안 들어오고,

부위원장(○○○ 위원)

그게 ○○○○가 신용의 문제와 자금의 문제와 이런 것들,

○○○ 위원

○○○에 700, 400명 정도 짜리 할 때 얼마나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이 들어왔어요.

부위원장(○○○ 위원)

그때는 많이 왔었죠, 그때.

○○○ 위원

진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들한테 다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너네 몇 평이니까 몇 평만 줄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들은 용역할 때 그거 정말...
○○○ 위원님.

○○○ 위원

예.

○○○ 위원

진짜 용역할 때 ○○○에 우리 그 ○○ 들어올 때처럼요, ○○○○들이
진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들이 다 지금 50%씩 차지하고 전체 지분을 다 갖고 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여기도 다 그런 것 같은데.
1번도 그러고 2번,

○○○ 위원

땅이 커가지고, 이 사업지가 너무나 크니까.

○○○ 위원

아니 그런데 ○○○에 300평, 400평짜리 들어왔을 때 우수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위원)

그때는 땅이 작았지, 예.

○○○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뭐냐 하면, 여기도 그러지만 어차피 신탁해
서 받아갖고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1,000평 미만은 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
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시공사로 들어올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 위원

저는 와서 보니까 이 R&D는 다 부동산 개발하고...

○○○ 위원

그러니까 ○○사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 위원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 위원

그런데 저렇게 약속 지킬 건가 모르겠네, 나 진짜.

○○○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 위원

저 헛갈리는...제가, 판단을 지금 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번은, 1번의 경우는 실수요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왔고요.

2번은 완전히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 위원

그러니까.

○○○ 위원

판단이 달라요, 2개가.

그래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 마곡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수요 기준을 의사결정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산센터를 건립하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성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부위원장(○○○ 위원)

맞아요, 예.

○○○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뒤편 해야 하는지, 지금 되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를 생각하면, 전문○○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 마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사업성을 본다면,

부위원장(○○○ 위원)

실속에,

○○○ 위원

실수요자가 중심이 돼서 이거를 이어가는 게 또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업종 자체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 나름의 어떤 ○○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을 그냥 이 미래가치를 같이 볼 거냐, 이거를 가지고 보려니까 되게 판단이 어렵네요, 이게.

○○○ 위원

그래서 저는 ○○○에 ○○할 때 그런 기업들이 몰려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오히려 마곡이 더 나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부위원장(○○○ 위원)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 위원

실제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지만이 투자해서 이익도 남기면서, 기업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공사가 아니라, 저 대표기업이 다 차지해갖고 가잖아요.

시공이고 뭐고 다 갖고 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다 빈 땅만 남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게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다 ○○ 기업들만 위주로 들어오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 용역하자고 했던 것이 ○○○○ 들어오려면, 정말로 한 500평씩 쪼개든지,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위원)

분양 평수가 너무 크죠, 몇 천 평씩...하니까.

○○○ 위원

그렇죠, 몇 천 평씩 이게 하니까.

부위원장(○○○ 위원)

지금 계산하고 있죠?

나왔어요?

아직 안 됐어요?

○○○ 위원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 위원

결정을,

부위원장(○○○ 위원)

결정을 아직 못하셨구나.

○○○ 위원

아니 미래가치랑 사업성이랑 이거를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위원)

앞으로 남은 땅이 지금 토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은 토지가, 오늘 것 빼고?

서울시관계자B

지금 지식산업센터 4개 블록입니다.

○○○ 위원

4개 블록에 몇 개 남았어요?

서울시관계자B

4개,

○○○ 위원

...있잖아요.

서울시관계자B

...하고 유보지로 하나, 지식산업센터에 묶여 있는 것.

○○○ 위원

그래가지고 총 몇 개,

서울시관계자B

예.

○○○ 위원

우리가 10개 만들기로...

서울시관계자B

총 지금 9개인데 1개는,

○○○ 위원

공공이고, 지금 3개 했잖아.

서울시관계자B

예, 지금 3개 했고,

○○○ 위원

5개,

부위원장(○○○ 위원)

6개가,

서울시관계자B

아닙니다.

총 9개에서,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B

말씀드린 게,

○○○ 위원

공공,

서울시관계자B

공공지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관계자C

올 연말에 ○○블록,

서울시관계자B

지금 ○○블록.

서울시관계자C

...그거 빼놓고,

○○○ 위원

빼놓고 4개 남았네.

4개는 용역한다고 그랬고.

서울시관계자B

예, 맞습니다.

○○○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관계자D

4개가 땅이 지금 오늘 나간 것보다 큼니다, 다 하나하나.

○○○ 위원

그러니까 너무 커.

서울시관계자D

그래서,

부위원장(○○○ 위원)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서울시관계자D

잘라야...

부위원장(○○○ 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크다 이거예요.

○○○○가 들어오게 되니까,

서울시관계자D

예.

부위원장(○○○ 위원)

○○○○이...

○○○ 위원

사실은 ○○는 시공사로만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부위원장(○○○ 위원)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 위원

대표기업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부위원장(○○○ 위원)

분양 평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 위원

그런데 ○○○들은 시공사로만 들어오고,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대표사로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처음에 1차인가 그랬을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어렵습니다.

○○○ 위원

다른 안건 또, 보고안건,

서울시관계자

짧은데 할까요, 그러면?

○○○ 위원

예, 얼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우리 ○○○ 위원님이 작성을 안 하셔서 지금,

○○○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위원)

보고안건으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성을, 편하게 작성하세요.

서울시관계자

보고안건은 한 3분이면 끝납니다.

부위원장(○○○ 위원)

3분 하시면서 정신이 헛갈려가지고 저거 못 하시면 안 되니까.

○○○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위원)

금방 끝나죠?

○○○ 위원

예.

부위원장(○○○ 위원)

그럼 채점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럼 다음은 보고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에 대한 보고안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보고안건

지식산업센터(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일정(○○)

제1호 보고안건설명

서울시관계자

회의자료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20쪽에 보시면, ○○○에 그 위원님께서 ○○ 그 지식산업센터 추진 일정에 대해서 조금 당겨서 ○○월 말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임기 내에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지금 일정을 조정해서 실제 평가는 ○○월 말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20쪽 공모 추진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모공고는, ○○일 ○요일 날 공모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 그 같은 센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지식산업센터라 하더라도 같이 지식산업센터가 약간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직종별 업종이라든가 클러스터별로의 어떤 집중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특화계획도 고민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공모 그 계획안에 간단하게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요소는 별도로 달라지지 않고, 현재 기존에 하던 평가요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안에 공공성 확보라든가 산업생태계 이거를 평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다음번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호 보고안건심의 및 결론

부위원장(○○○ 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심사일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그랬으니까,
○○월○○일이 예정 이게 변동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시관계자

현재로서는 ○○월○○일로,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안 되신다면, 왜냐하면 정족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는 ○○월○○일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예.

특화계획은, 이거는 그 과란 글씨로 쓰인 것이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온 내용이죠, 이게?

서울시관계자

예, ‘공모할 때 안내가 되었다.’라고.

그렇지만 평가요소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위원)

예.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보고안건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서울시관계자E

3분만 시간 주십시오.

부위원장(○○○ 위원)

몇 분이요?

서울시관계자E

3분이요.

부위원장(○○○ 위원)

3분.

서울시관계자E

예.

부위원장(○○○ 위원)

그러면 3분 동안,

서울시관계자

그러면 위원장님.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

다음번 일정을 미리 공지를 할까요?

부위원장(○○○ 위원)

예, 다음번 일정.

서울시관계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

저희가 ○○월 말쯤에, 다음번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안건은
아닙니다.

심사를 하는 게 아니어서, 지금 보고안건하고 약간 의사결정해야 되는
안건이 지금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정돼서 ○○월, 추석 다음 ○○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1시간 이내로 회의를 마칠 수 있는 안건이 지금
저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추석 다음,

서울시관계자

일정만 먼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추석 다음 주.

서울시관계자

1시간 정도 회의.

부위원장(○○○ 위원)

추석 다음 주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시관계자

예, 지금 ○○월 마지막 주가 추석 다음 주던데요.

부위원장(○○○ 위원)

○○월○○일 화요일 날 어떠세요?

○○○ 위원

좋습니다.

○○○ 위원

○○월○○일 화요일이요?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화요일은 안 되는데요.

부위원장(○○○ 위원)

화요일 안 됩니까?

○○○ 위원

예, ...있어서.

부위원장(○○○ 위원)

그러면 수요일은 제가 또 안 되고,

○○○ 위원

월요일 안 되나요?

부위원장(○○○ 위원)

월요일 가능해요?

서울시관계자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위원)

괜찮습니까?

서울시관계자

예.

부위원장(○○○ 위원)

예, 그럼 월요일 저는 괜찮아요.

월요일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괜찮습니다.

그럼 ○○월○○일.

○○○ 위원

시간은 ○○시.

부위원장(○○○ 위원)

○○시입니까, ○○시?

서울시관계자

예, ○○시, ○요일이니까 오후가 좋을 것,

부위원장(○○○ 위원)

예, 그러면 ○○시로.

서울시관계자

저희 ○○○ 위원님 괜찮을까요, ○○○ 위원님?

○○○ 위원

저요?

서울시관계자

예.

○○○ 위원

저는 당연히 괜찮아야 되는 것,

서울시관계자

아니 추석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거기에서 맞춰서 일정이
계실까 봐, 다른.

부위원장(○○○ 위원)

추석이 그 전 주 수요일 날 끝나니까.

서울시관계자

예.

부위원장(○○○ 위원)

그럼 ○○월○○일로.

서울시관계자

예, ○○일 ○○시로.

부위원장(○○○ 위원)

○○시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서울시관계자

사실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 서면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최송스럽지만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일 오후 ○○시로.

제1호 심의안건결론

부위원장(○○○ 위원)

나왔습니까?

서울시관계자E

예, 위원님 발표 ○번,

부위원장(○○○ 위원)

이게 지금 환해서 잘 안 보는데 이거,

서울시관계자E

불 끄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꺼주시죠.

서울시관계자D

발표 ○번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신 점수이신 거고요.

각 위원님별로 확인드렸고요.

그래서 최고점 주신 분, 그리고 최저점 주신 분 제외해서 발표 1번이

○○○○이 나왔고요.

부위원장(○○○ 위원)

○○○○점, 예.

서울시관계자E

○○○○이 나왔고요.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E

그다음에 발표 ○번이고요.

그래서 ○○○○점, ○○○○점을 제외하고 여덟 분 평균 내면 ○○○○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위원장(○○○ 위원)

이게 몇 번이에요?

서울시관계자E

발표 ○번입니다.

부위원장(○○○ 위원)

이게 ○번?

서울시관계자E

발표 ○번.

부위원장(○○○ 위원)

○번?

서울시관계자E

예.

부위원장(○○○ 위원)

○번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서울시관계자E

발표 ○번입니다.

부위원장(○○○ 위원)

이게 ○번.

○○○○.

그럼 ○번이 더 높네요.

○○○ 위원

정량점수가 합쳐져서,

서울시관계자E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위원)

정량점수를 합해야지.

서울시관계자E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게 정량이고요.

밑에 게 정성입니다.

○○○ 위원

정량이 위에 거고 밑에 게 정성.

서울시관계자C

○번, ○번 보여드렸던 게 ○ 번째 준 점수이고요.

부위원장(○○○ 위원)

이게 헛갈려가지고.

○○○ 위원

○점 차이.

서울시관계자C

○ 번째가 그 전에 정량평가인데,

부위원장(○○○ 위원)

지금 또 ○○○○은 뭐요?

이게 ○○○○이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서울시관계자E

맞습니다.

발표순서대로 ○번이 좌측이었고요.

우측이 발표 ○번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예, 그러면 정량평가가 ○번이 ○○○○점,

○○○ 위원

점수 차이 얼마 안 나네.

부위원장(○○○ 위원)

그다음에 ○○○○이 ○○○○점, 정량평가가 더 적었네요, 저기가.

서울시관계자E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예, 그리고 정성평가에서 ○번이 ○○○○점,

○○○ 위원

비슷하네.

○○○ 위원

○점 차이네.

부위원장(○○○ 위원)

○번이 ○○○○점,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 위원

○점 차이네.

부위원장(○○○ 위원)

그러면 합계가 ○○○○, ○○○○.

○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위원

○점.

○○○ 위원

○점.

부위원장(○○○ 위원)

○점.

서울시관계자E

○ 점입니다.

부위원장(○○○ 위원)

이게.

서울시관계자

그래도,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

정성적 평가가 위원님들이 평가한 거고 700%이니까,

부위원장(○○○ 위원)

한 거, 예.

서울시관계자

정성적 평가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 거니까 점수가 1, 2점 차이
라도,

부위원장(○○○ 위원)

예, 물론입니다.

서울시관계자

...나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물론입니다.

그래서 순위는, ○ 번째 발표한 ○○○○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까.

○○ 우선협상대상자는, ○ 번째 발표한 ○○○○ 컨소시엄이 ○○○○
을 얻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사 봉 3타!)

○번, 이거 나중에 기업들 컨소시엄이 다 확인하죠, 점수?

어떻게 됩니까?

점수 기업들이, 컨소시엄이 이거 확인하자고 그러면 점수 알려줘야 되
죠?

○○○ 위원

아니죠.

부위원장(○○○ 위원)

안 알려줍니까?

서울시관계자E

지금까지 한 정량만 알려줬고요.

정량은 자기 점수에 대해서,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E

객관적인 ...

부위원장(○○○ 위원)

아니 제 말은 총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점수를,
서울시관계자E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공개 없이, 그냥,
서울시관계자E

순위만 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

순위만 알려줍니까?

서울시관계자E

예.

서울시관계자D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부위원장(○○○ 위원)

아니 제,

서울시관계자D

정보공개 요청해서 사후에,

부위원장(○○○ 위원)

그렇죠, 공개를 하게 되면, 다시, 0점 차이가 몇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안 나서.

○○○○○○○○○

너무 차이가 안 나.

○○○ 위원

점수가 너무, 한번 다시 한 번,

부위원장(○○○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 위원

예.

부위원장(○○○ 위원)

예, 이거 저 ○○, ○○가 잘못됐는지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재차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차이가 몇 점 차이가 난다면 괜찮겠는데, 이게 ○.몇 점 차이가 나니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또.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 위원

...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감점을 받은 거예요, ○점을.

그래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부위원장(○○○ 위원)

만약에 정보공개를 요구를 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관계자D

아닙니다.

부위원장(○○○ 위원)

안 들어줘요?

서울시관계자D

저희가 재판에 졌을 때.

부위원장(○○○ 위원)

예.

○○○ 위원

그런데...왜 이렇게 다 잘하는 거예요, 다들?

부위원장(○○○ 위원)

정량점수는 알려주는 거잖아.

○○○ 위원

정량은 다 알려주죠.

서울시관계자B

저희가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위원)

 정성점수는 알려주고,
서울시관계자B

 ...지표는...

서울시관계자D

 자기평가점수표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D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저희 점수표랑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자기가 스스로,

○○○ 위원

 자기 점수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

서울시관계자D

 예,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낸 거를 저희 내부도 하고,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D

 회계법인도 ○ 군데 저희가 맡겼는데요, 따로따로.

 똑같습니다, 점수가.

○○○ 위원

 뭐 또 확인할 게 있어요?

부위원장(○○○ 위원)

 그래도 마지막 확인 절차가.

서울시관계자E

 위원님들 그러면...발표 ○번부터 여기 차이만 없으면,

부위원장(○○○ 위원)

 저거 한번 꺼주세요.

 저 불을 한번 다시 한 번 꺼주십시오.

 혹시나 또 모르니까.

서울시관계자E

위원님, 그래서 이 열 분에 대해서 전체 열 분을 더하면 ○○○○가 나오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열어서 다시 한번, 수기계산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면요.

부위원장(○○○ 위원)

그래요.

서울시관계자E

○○○○가 전체 총점이고요.

○○○○를 빼고 또 ○○○○을 빼면, 옆에 지금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누기 8을 하면,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E

○○○○, 그래서 ○○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위원)

반올림해서?

서울시관계자E

예, 반올림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수기계산도 해봤고요.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E

그래서 이 숫자가 맞더라.

부위원장(○○○ 위원)

이거는 됐고.

서울시관계자E

저희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엑셀이 기계로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부위원장(○○○ 위원)

예.

그다음에 ○번.

서울시관계자E

○ 번째도 보시면 전체를 더하면 ○○○○이 나옵니다.

빼기 ○○○○, 빼기 ○○○○을 하면,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E

○○○○가 나오구요.

여기에서 나누기 8을 하면 ○○○○가 나옵니다.

저희가 핸드폰으로 계산기 따로 해봤고요.

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다.

부위원장(○○○ 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서울시관계자E

그래서 입력사항만 맞았다면,

부위원장(○○○ 위원)

예.

서울시관계자E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대로 입력만 했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위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 하여튼 아까 의결을 내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다시 다 끝난
거죠?

○○○(○○○○○○○○장)

예.

부위원장(○○○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차, 잠깐만요, 이것하고.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봉 3타!)

.....폐 회